

**근래** 필자는 오랜만에 호주의 멜본을 다시 찾았다. 처음 방문은 70년대 초반에 세계보건기구의 장기 펠로서서, 두 번째는 워크샵에 참가할 때였다. 멜본은 공원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공으로 곱게 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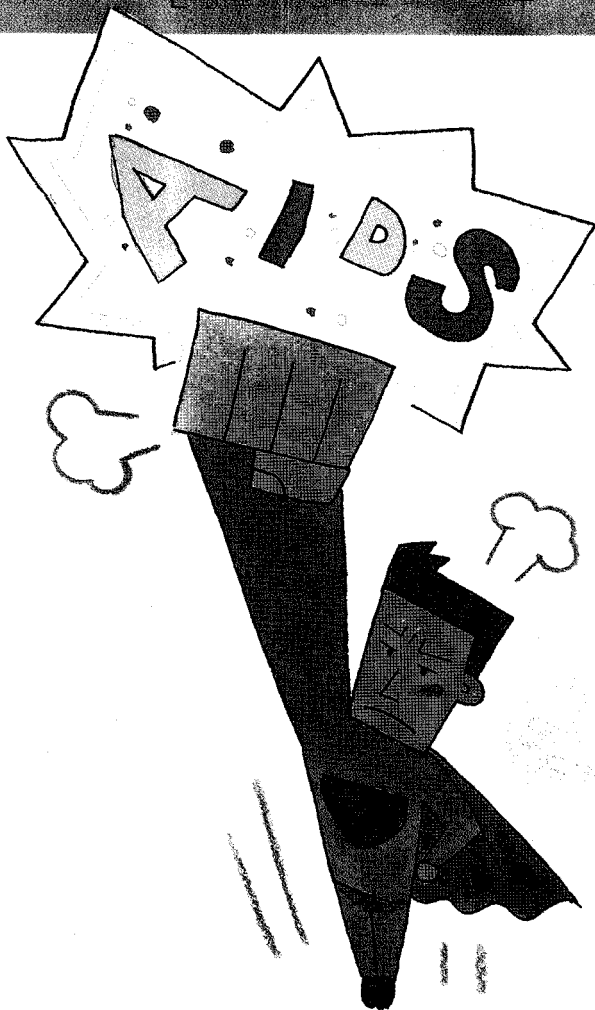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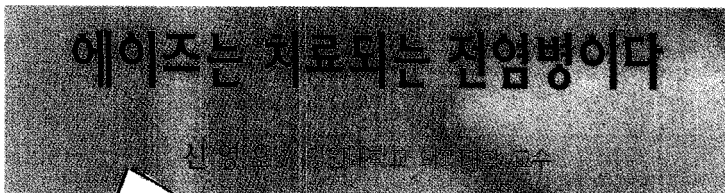
민 공원과 원시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아늑디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도 조용하고 깨끗하다.

바이러스를 전공하는 사람에게 는 더욱 인연 깊은 도시이다. 바이러스관련 연구소가 많으며 바이러스학자로서 항체생산에 대한 클로닝 이론으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버널박사가 활동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 곳에는 주로 에이즈를 연구하는 국가혈청표준실험실(NSRL), 빅토리아 감염병표준연구실(VIDRL), 버널의학연구센터 이외에도 대학이나 병원 등 많은 기관들이 있어, 필자는 이들 연구소와 대학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옛 동료들과 재회도 하고 머리를 새롭게 채우고져 하였다.

초가를 비가 축축하게 내리는 날,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아라강변의 피어필드전염병연구소자리를 찾았다. 천연의 자연림은 옛 그대로 이었으며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었다. 옛날에 번성하던 전염병원은 폐쇄되고 주로 에이즈 연구를 위한 맥팩렌 버널(McFarlane Burnet)의학연구센터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오전을 보내는 동안 호주가 에이즈연구에 투자하는 규모와 열의에 놀랐으며 나올 때는 심한 감회와 흥분에 쌓여 있었다.

사반세기 전 삼십대 초반에 처



음으로 생활하던 외국을 다시 찾아 왔다는 감회도 있었으나 이 보다는 연구원이 나에게 보인 실험자료 때문이었다.

그들은 에이즈환자를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한 후에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바이러스의 숫자를 최신 검사방법인 bDNA 증폭기술로 시험하고 있었다. 치료의 모니터링 기술은 수년전까지만 해도 오백이 검사의 한계이었으나 현재의 방법은 오십까지의 탐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의 자료에는 치료받은 사람의 다수가 오십 이하의 커피수를 보였다. 바로 이 것이 나로 하여금 들뜨게 만든 것이다.

오십개 이하까지 시험할 수 있는 진단기술과 바이러스를 이 정도로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은 분명 현대 생명과학의 혜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RNA 커피수가 오십개 이하라는 것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바이러스는 존재하는 입자 숫자의 10~20%만이 실제 감염성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근래의 복합치료 방법은 에이즈를 "치료되는 전염병"으로 바꾼 것이다. HIV 감염자에게는 불문이고 에이즈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실험자료를



RNA 커피수가 오십개 이하라는 것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바이러스는 존재하는 입자 숫자의 10~20%만이 실제 감염성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근래의 복합치료 방법은 에이즈를 "치료되는 전염병"으로 바꾼 것이다. HIV 감염자에게는 불문이고 에이즈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실험자료를

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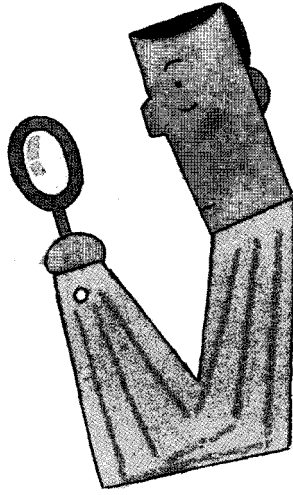
에이즈에 관한 많은 사실이 외국 교과서의 내용과 국내의 실상이 다를 수 있게 된다. 외국의 교과서에서는 HIV 감염 10년 이후에 만이 환자로 진전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필자들이 국내의 많은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감염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감염 10년 후에 20대지 30%만이 환자로 진전되었다.

감염 후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때는 이러한 숫자가 5%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과거 십여 년 남짓한 기간 중에 치료제 개발이 이 정도임을 생각할 때 앞으로 십년 동안 치료제 개발의 성과는 보다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감염자가 십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살아 있을 때, 보다 효능이 우수한 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불분 필자가 현 치료제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혹자는 에이즈의 치료제 개발은 불가능하며 인간은 가장 잔사한 바이러스 중의 하나인 HIV와의 싸움에서 영원한 패자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들의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근

# AIDS



에이즈와 HIV에 대하여서는 유별나게 편견과 오해가 많아 왔다. HIV가 발견되고 이십년이 흘러간 지금도 무지와 편견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에이즈 분야에서 급격히 변하는 새로운 발견들을 따라가기 힘들고 HIV가 처음 알려졌을 당시의 잘못된 선입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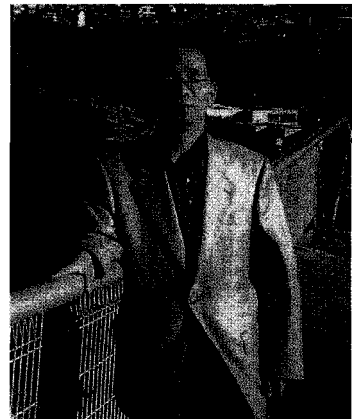
거가 있다.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HIV의 변이나 저항성 문제는 세균에 대한 항생제와 같이 효과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치료제와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을 동시에 투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필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에이즈치료제와 한국산 홍삼을 병용하였을 때 치료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 보다 바이러스량은 적은 반면 면역 세포 수는 많았다. 홍삼은 에이즈 치료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HIV에 의한 면역세포(CD4립프세포)의 파괴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HIV감염자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스컴은 이제 에이즈에 대하여 별

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매스컴의 무관심은 좋은 점도 있으나 국민에 대한 홍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이즈와 HIV에 대하여서는 유별나게 편견과 오해가 많아 왔다. HIV가 발견되고 이십년이 흘러간 지금도 무지와 편견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에이즈 분야에서 급격히 변하는 새로운 발견들을 따라가기 힘들고 HIV가 처음 알려졌을 당시의 잘못된 선입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중의 하나가 HIV에 감염되면 곧(?) 죽어야 하며 결코 나올 수 없는 병이라는 오해이다. 그러나 현재 에이즈는 치료제가 있으며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감염증질환에 불과하다. 이제 에이즈 관련인 모두는 감염자나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홍보와 상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



서울대 호주 해안에서'의 필사